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분석 및 하반기 전망

자료제공 / 해외건설협회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가 131억불로 마감되었다. 상반기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저효과(base effec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해외 건설 수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나머지 실제로는 올해 실적이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금액도 131억불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유가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주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불대를 상회하는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 업체들도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수주금액은 상반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편집자 주]

I. 상반기 수주실적 분석

1. 개황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가 131억불로 마감되었다.

고유가와 인프라개발 붐으로 2007년과 2008년 수주가 급증한 뒤에 실적이 감소하다보니 올 상반기 내내 해외건설 경기침체 및 수주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연간 해외건설 수주가 100억불을 넘었던 것이 10회에 불과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131억불을 수주한 것은 매우 가치있고 의미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 주요 발주처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저효과(base effec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해외건설 수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나머지 실제로는 올해 실적이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유가 급등과 함께 200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7년 398억불에 이어 2008년에는 476억불을 기록하면서 1965년 이후 전체 수주누계가 3천억불을 넘어섰다. 또한, 수출주력상품인 조선(410억불), 자동차(350억불), 무선통신기(344억불), 반도체(328억불)의 수출물량을 추월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이다.

비록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금액도 131억불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유가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동지역을 중심으

로 해외건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우디, 이란, 알제리, 앙골라 등의 중동,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우리업체들의 수주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사우디에서 추진해 오던 주베일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수주가 확실히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9년 들어 해외건설 수주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던 터라 24억불에 이르는 동 프로젝트의 수주는 모처럼 업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반기 수주실적 분석

2009년 상반기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동지역에서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80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1%에서 61%로 높아졌다. 아시아에서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40억불을 수주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는 6억불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난 해 칠레와 엘살바도르에서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데 힘입어 2007년의 6배가 넘는 18억불의 수주를 기록했던 중남미에서는 6월 현재 1억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 대부분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중별로는 플랜트 부문에서 49억불을 수주하여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37%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지역	2006.6.30		2007.6.30		2008.6.30		2009.6.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전년대비증감률
총 계	156	8,524 (100.0%)	267	16,078 (100.0%)	320	25,911 (100.0%)	246	13,129 (100.0%)	-49.3%
중 동	33	4,497 (52.8%)	55	10,523 (65.5%)	70	13,129 (50.7%)	55	7,955 (60.6%)	-39.4%
아시아	92	2,279 (26.7%)	158	3,348 (20.8%)	190	8,646 (33.4%)	158	3,981 (30.3%)	-54.0%
중남미	1	19 (0.2%)	5	276 (1.7%)	7	1,796 (6.9%)	8	125 (1.0%)	-93.0%
아프리카	9	1,138 (13.4%)	15	751 (4.7%)	25	1,079 (4.1%)	14	634 (4.8%)	-41.2%
유럽	8	263 (3.1%)	10	885 (5.5%)	14	851 (3.3%)	5	354 (2.7%)	-58.4%
태평양, 북미	13	328 (3.8%)	24	295 (1.8%)	14	410 (1.6%)	6	80 (0.6%)	-80.5%

※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공 종	2006.6.30		2007.6.30		2008.6.30		2009.6.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금액증감률
총 계	156	8,524 (100.0%)	267	16,078 (100.0%)	320	25,911 (100.0%)	246	13,129 (100.0%)	-49.3%
플랜트	25	5,396 (63.3%)	38	11,830 (73.6%)	47	14,376 (55.5%)	21	4,897 (37.3%)	-65.9%
토 목	25	1,060 (12.4%)	31	1,875 (11.7%)	50	5,319 (20.5%)	46	3,264 (24.9%)	-38.6%
건축	25	1,725 (20.2%)	57	2,096 (13.0%)	61	5,140 (19.8%)	54	4,501 (34.3%)	-12.4%
용역	60	56 (0.7%)	123	87 (0.5%)	129	313 (1.2%)	102	316 (2.4%)	1.0%
기 타	21	287 (3.4%)	18	190 (1.2%)	33	763 (2.9%)	23	151 (1.0%)	-80.2%

※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60개국	246	13,129	256개사	246	13,129
1	U.A.E	14	2,966	현대건설	2	1,961
2	사우디	14	1,686	삼성물산	3	1,170
3	싱가포르	7	1,333	SK건설	5	1,147
4	리비아	14	1,217	삼성ENG	5	1,063
5	알제리	6	1,089	한일건설	2	887
6	인도	6	958	대우건설	3	759
7	베트남	36	702	현대ENG	6	575
8	이라크	3	544	대림산업	2	558
9	이란	1	380	쌍용건설	1	555
10	적도기니아	3	327	경남기업	2	535
기타	50개국	142	1,927	246개사	215	3,919

토목 부문은 싱가포르, 알제리, 적도기니 등을 중심으로 33억불을 수주하였으나 전년 동기의 53억불과 비교하면 61% 수준에 그쳤다. 건축 부문은 리비아, 러시아 등에서 대규모 주거단지과 우리기업의 제조공장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총 45억불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해 실적의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발표된 10억불 규모의 UAE 개발 프로젝트를 감안하더라도 건축부문의 수주실적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해외진출이 활발한 용역 부문에서는 3억불을 수주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가스플랜트, 부동산개발 등 아부다비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총 30억불을 기록한 UAE가 선두를 차지했으며 이어 현대건설이 13억불이 넘는 카란 가스전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우디가 17억불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별 수주실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UAE,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과 같은 산유국이나 정부의 인프라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인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상반기 수주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전년 실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대규모 발전소 투자로 각각 13억불과 5억불의 수주를 기록했던 칠레와 엘살바도르 등은 울들어 새로운 수주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업체별로는 사우디의 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20억불 가까운 수주를 기록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물산, SK건설, 삼성Eng 등이 각각 10억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우리 업체들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수주공사

(단위: 백만불)

국 가	업 체	공 사 명	금액
사우디	현대건설	카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PKG 1- 카란 가스시설 공사	1,348
U.A.E	삼성물산	팜 주메이라 빌리지 센터	1,080
인도	삼성ENG	ONGC 듀얼피드 에틸렌 프로젝트	930
U.A.E	SK건설	밥 가스 압축 플랜트 공사	819
리비아	한일건설	자위야 3,000세대 주거단지 프로젝트	675
싱가포르	현대건설	주룽 지하암반 유류비축기지 1단계 공사	592
싱가포르	쌍용건설	도심 지하철 2단계사업 C921공구	552
알제리	경남기업	시디압텔라 신도시 인프라 설계 및 시공	483
이라크	태화산업개발	아르빌 서민주택공급 프로젝트	420
알제리	대우건설	Arzew LNG 트레인 건설 프로젝트	279
아랍에미	삼미건설	아부다비 Ghayathi 및 Bida Al Mutawa 지역 주거단지 건설공사	271
이란	대림산업	이스파한 정유시설 증설 프로젝트(중액)	258

중소기업은 총 242건 26억불을 수주하여 지난해의 40억불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 2009년 상반기 수주 특징

우선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주금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중동 및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정부재정을 활용한 주요 플랜트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주금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가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에 비해 아부다비는 풍부한 재정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착실히 수행함에 따라 UAE에서의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리비아에서도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투자의지에 따라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 수주가 증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인프라 건설에 정부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 업체들의 수주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도에서도 9.3억불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성공으로 수주금액이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밖에도 이라크, 이란,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매년 전체 수주의 60% 내외를 차지해오던 플랜트 부분의 수주비중은 37%로 떨어졌다. 플랜트 부문 수주의 주시장인 중동 발주처들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조절,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락에 따른 발주시기 조정 등이 수주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토건 부문이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 부문은 UAE, 리비아, 이라크 등에서 주거단지 건설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주비중이 지난 해 20%에서 올해 34%로 크게 높아졌다. 건축 부문은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주실적도 9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부문 역시 싱가포르, 알제리 등에서 지하철 공사 및 유류비축기지, 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작년에 비해 비중이 4% 정도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활발히 추진되던 개발형사업은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다수의 사업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주금액도 2008년 총 18건 36억불규모에서 올 들어 2건 3,400만불 수준에 그쳤다.

한편,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증가 추세는 2009년에도 계속되었다. 상반기에만 421개사가 새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419개사에 비해 2개사가 더 많았으며, 전체 해외건설업체 수는 3,760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신시장 개척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짐바브웨, 파라과이, 노르웨이, 쿠바 등 4개국에 새로 진출했다.

II. 하반기 전망

24억불 규모의 사우디 주베일 정유공장과 같이 현재 우리 업체의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는 약 50억불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중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약 170억불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중에서 수주에 실패하는 건들도 있을 테지만, 현재 드러나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수주도 상당 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주전망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불대를 상회하는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 업체들도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수주금액은 상반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은 최근 GCC 국가들의 프로젝트 입찰 규

모가 증가하는 등 건설시장이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하반기에는 그동안 입찰을 보류해 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시장 역시 인프라 중심의 경기부양책 가동으로 상반기에 비해 수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석유화학 및 전력부문의 대형 플랜트공사 발주 여부가 수주금액 증가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알제리, 리비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의 북아프리카의 산유국들도 석유·가스의 업스트림 부문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업체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알제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초에도 대형 신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 공사를 우리 업체가 수주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고속도로, 도시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수주전망이 밝다.

한편, 국제유가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 우리 업체의 해외건설 수주가 무엇보다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의 발주물량 증가를 바탕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의 경기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중동지역 발주처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연내에 국제유가가 85불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급락한 시멘트나 철강제품 등 건자재 가격이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하반기 발주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 및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프로젝트 발주를 연기해왔던 주요 발주처들이 건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

라 사업 재추진 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격의 추가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프로젝트 발주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는 것이다. 2008년 1,500불 까지 급등했던 철강제품 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500불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로 중국산 철강가격이 10~15% 인상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관심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2009년 상반기에 우리 업체들이 신고한 수주활동 프로젝트 규모는 총 327건 1,250억불 규모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의 1,330억불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수주목표도 공격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이 중동과 같이 정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 업체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09년 현재 약 5조불 규모로 이중 외국업체에게 개방되어 있는 해외건설시장은 8% 수준인 4천억불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ENR(Engineering News-Record)은 2007년 매출액 기준 우리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2.6%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시장이 매우 넓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수주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기업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업체 사이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드러내는 사례를 ENR지가 발표하는 상위 업체들의 매출액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ENR 순위 1위인 Hochtief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2000년 74억불에서 208년 213억불로 증가했으며, 2위인 Vinchi의 경우에도 36억불에서 147억불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Skanska, Bechtel, Fluor 등도 같은 기간 두배 정도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업체들의 매출규모는 경기변화에 따라 부침을 반복한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내용도 EPC 공사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진출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규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시장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제공능력이나 기술력제고를 통한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상식

성층현상

강 하구에서 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면 바닷물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민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찬물이 무겁기 때문에 자연히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표층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바닷물이, 저층에는 차고 무거운 바닷물이 층을 이룬 채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여

름에는 표층의 경우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층에는 유기물이 산화하면서 산소가 소비되는데, 오염이 심한 곳은 저층의 산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고갈됩니다.